

산문집 《가만 가만 부르는 노래》 펴내 노래하는 작가, 한강



“혼자서 노래가사에 음을 붙여 부를 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생각이 많을 때 노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위로를 다른 사람이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작가 한강은 노래에 담긴 지난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아련한 추억을 새긴 에세이와 생의 아픔과 찬란함을 담담하게 음반에 녹여냈다.

시골에서 보낸 유년을 생각나게 하는 〈엄마야 누나야〉, 고등학교 때 짝꿍을 통해 알게 된 〈행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는 〈해화동〉, 방황하던 청년들이 목이 터져라 불렀던 〈내 사랑 내 곁에〉, 강원도행 밤기차의 굉음을 기억나게 하는 〈500miles〉 등 22곡을 추려 노래에 담긴 사연들과 작가가 바라보는 삶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또한 그가 혼자서 흥얼거렸던 10곡의 노래들은 작곡가 한정림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음반에 실리는 행운을 얻었다.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들 〈12월 이야기〉 〈내 눈을 봐요〉 〈나무는〉 〈휠체어 댄스〉 〈추억〉 〈새벽의 노래〉 〈햇빛이면 돼〉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가만가만, 노래〉 〈자장가〉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표제작으로 꼽은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와 〈나무는〉이다.

간간이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큼직한 눈망울에서 세계를 힘껏 끌어안는 성숙함이 보인다. 이번 산문집을 내면서도 자신보다 위로 받을 타인을 먼저 생각했다는 작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인가.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함, 나를 돋보이게 하는 화려함 보다는 속에서 자연스레 우러나는 진정성 말이다.

작가의 노래 실력은 인터넷 문학라디오 방송인 ‘문장의 소리’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다. DJ로 활동하면서 책을 읽어주고, 자신이 만든 노래를 청취자들에게 불러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는 노래를 녹음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은 고개만 빼꼼히 내민 수줍은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일 터. 분명 작가도 그러했을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가만가만 노래 부르는 것에 익숙할까. 아마도 낯설 듯 싶다.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만 가만 부르는 작가의 음성 속에 삶을 대하는 뜨거운 열정이 듣는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만든다.

“산문집과 음반은 어둡고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을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공감이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5년도에 〈몽고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는 지금 장편소설을 작업 중이다. 1993년 《문학과 사회》에 등단 이후 작가의 글이 준 크고 작은 울림들은 또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사뭇 기대된다. **★**

